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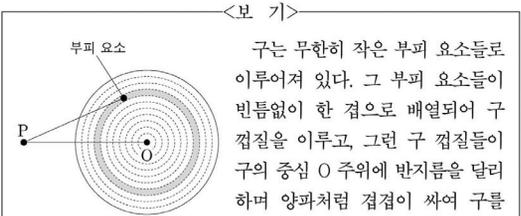
수능 국어 영역별 학습법 ②

독서, 기출문제 분석이 키

최근 독서 지문의 특징은 많은 정보량과 복잡한 선지다. 교사들은 독서의 본질은 사고력 측정이므로 지문 내용이 생소하더라도 지문 속 정보 간의 관계 파악, 어휘력 등의 기본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학년별 독서 학습법을 살펴본다.

취재 김지민 리포터 sally0602@naeil.com
 도움말 장동준 교사(인천 포스코고등학교)
 남궁윤 국어강사(청라 이투스)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강한 국어〉

3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 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싸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볼 수 있다.

- (1)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 (2) (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단기질량이 M 인 지구와 질량이 m 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 ④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 ⑤ 반지름이 R , 질량이 M 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 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 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R+h$ 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년 수능 국어 31번과 같은 초고난도 문제 출제는 지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독서 문제는 좀 더 쉽게 출제될까? 인천 포스코고 장동준 교사는 “31번은 선지의 길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 문제였다. 6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까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선지 길이는 짧아지더라도 정보량이 많은 지문 속에서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출제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능 독서 독해 능력은 고3 때 시작하는 기출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장 교사는 “1, 2학년 때부터 어휘력, 다양한 분야의 독서, 모의평가와 기출문제 분석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어휘력 어떻게?

독서 기출문제를 풀 때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따로 정리해 나만의 어휘집을 만들어두면 어휘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문장을 읽다가 모르는 어휘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선생님 advice

“예를 들어 ‘배타적’이란 단어의 뜻을 유추하느라 주요 정보를 파악하는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겠지? 모르는 어휘는 사전적 의미를 아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활에서 직접 활용해보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3학년은 어휘집까지 만들어 준비하기는 부담스러울 테니 문제집이라도 적어놓으면 도움이 될 거야.” 장동준 교사

기출문제 분석 이렇게

교사들은 “종합 전형이 대세이긴 하나 수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수능을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면 3학년 시작 전까지 기출 분석 훈련을 충분히 해놓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선생님 advice

“1, 2학년의 기출문제 분석은 속도보다는 정확도에 중점을 두어야 해. 지문에 제시된 정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선지의 유형도 익혀야지. 3학년도 기초가 부족하다면 적어도 6월 모평 전까지는 정확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훈련을 해야 해. 화법·작문 지문이 길어져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시간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_남궁윤 교사

기출 분석 사례

[A] 두 음이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릴 때, 음의 어울림, 즉 협화도는 음정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 음정이란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을 말하며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가령, '도'와 '미' 사이처럼 장3도 음정은 5/4이고, '도'와 '솔' 사이처럼 완전5도 음정은 3/2이다. 그러므로 장3도는 완전5도보다 좁은 음정이다. 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진다고 본다. 가령, 음정이 2/1인 옥타브, 3/2인 완전5도, 5/4인 장3도, 6/5인 단3도의 순서로 협화도가 작아진다.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의 음정을 협화 음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음정을 불협화 음정이라고 하는데 16세기의 음악 이론가인 차를리노는 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 2, 3, 4, 5, 6로만 표현되는 음정은 협화 음정, 그 외의 음정은 불협화 음정으로 보았다.

〈보기〉

바이올린을 연주했을 때 발생하는 네 음 P,Q,R,S의 기본음의 진동수를 측정해 결과를 표와 같았다.

음	P	Q	R	S
기본음의 진동수(Hz)	440	550	660	880

- ① P와 Q 사이의 음정은 장3도이다.
- ② P와 Q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좁다.
- ③ P와 R 사이의 음정은 협화 음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P와 R 사이의 부분을 중에는 진동수가 서로 같은 것이 있다.
- ⑤ P와 S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협화도가 크다.

“협화도와 음정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야. 이처럼 사고력을 측정하는 고난도 문항은 정보 간의 관계를 활용해야 해결할 수 있어.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지문을 읽으려면 먼저 개념, 이론, 원리, 과정, 주장·관점, 대상의 기능과 같은 정보가 드러난 문장에 표시해두고, 정보들의 관계를 간략하게 구조화해 메모해두면 좋아. 그다음 선택지와와의 대응을 통해 선택지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면 되지.”_장동준 교사

통섭형 독서와 다양한 정보 활용

독서의 본질은 사고력 측정인 만큼 지문에 관한 배경지식이 절대 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배경지식은 ‘속도’에 영향을 준다. 독서 지문은 교과 내용과 연관돼 출제되지만 대부분 교과서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

선생님 advice

“독서 지문은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출제되는 만큼 1, 2학년 때는 다양한 분야에서 통섭형 독서를 하면 좋겠지? 그렇다고 모든 과목마다 심화독서를 할 수는 없으니 인터넷이나 잡지, 신문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배경지식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야.”_장동준 교사

MORE TIP

실전! 독서 문제 풀이 6계명

- 01 3개의 지문 중 쉬운 지문 2개를 먼저 풀고 답안지 마킹까지 미리 해둔다. 시간 부족의 부담을 덜어 마지막 지문을 편하게 풀 수 있다.
- 02 속독하지 않는다. 정독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03 지문 속 중요한 정보와 다양한 의견들은 반드시 문제지에 간단히 정리해둔다.
- 04 접속부사와 지시어에 집중한다.
- 05 어휘의 의미를 물어볼 때는 ‘사전적’ 의미인지 ‘문맥적’ 의미인지 먼저 파악한다.
- 06 독서 영역은 상상력이 아니다. 지문 내용이 무엇이든 글의 논지 안에서 풀어야 한다.

MINI INTERVIEW



독서, 지문 속 정보 찾기

김세린
이화여대 화학과 2학년

독서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독서는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지 생각하고 문제는 어떤 원리로 출제되는지를 꼼꼼히 분석했다. 노트를 마련해 지문의 문단별 정보를 따로 기록하며 분석했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정보와 정보의 연결 관계(인과 관계인지, 조건문인지, 비례와 반비례인지 등)도 주의 깊게 살폈다.

배경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나?
독서에 어떤 지문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배경지식을 넓히기보다는 지문 분석에 중점을 뒀는데 연계 교재에 실린 지문은 다양한 소재를 머리에 담는다는 생각으로 활용했다.